



‘평화를 기원하며...’ 6.25전쟁 61주년 추모

터키 참전용사 UN공원 참배, 남구문화원 헌화·헌다식 등 통해 값진 희생 기려



터키 참전용사 19명이 지난날 22일 UN기념공원을 찾아 추모행사를 갖고 안장돼 있는 동료들의 넋을 위로했다. <사진 부산일보 제공>

6·25전쟁 61주년을 맞아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산화한 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한국 땅을 밟았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이곳을 찾아 넋을 기렸다.

지난달 22일 터키 참전용사 19명은 UN공원을 찾아 추모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해외참전용사 감사편지쓰기 대회 입상자들이 편지를 남

독해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다. 대상 수상한 이서진(부산국제중 2) 학생은 “값진 희생과 용기로 한국을 도와준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동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터키어로 쓴 감사의 편지와 직접 만든 부채를 전달하고 카네이션을 달아줬다.

한편 6·25전쟁 당시 한국에 1만5천여 명을 파병한 터키는 용인 김량장 전투에서 백병전으로 중공군의

공세를 격퇴한 공으로 1951년 미국 대통령과 이듬해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부대표장을 받기도 했으며 현재 462명의 전사자가 UN기념공원에 안장돼 있다.

이를 후인 24일에도 다양한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부산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문화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헌다·추모 시낭송 등 추모행사를 열었다.

헌다식에서는 김현정 시(詩) 낭송

가가 김남조 시인의 작품 ‘무명 영령은 말한다’를 낭송하고 부산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은 ‘절망 앞에서’ 등 추모 노래를 불렀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헌다식. 남구문화원 수강생들이 전장으로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제단에 ‘차’를 올리는 의식을 엄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4일간 UN기념공원에서는 남구문인회의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시화전이 열렸다.

남구문화원 성재영 원장은 “추모헌다와 시화전을 통해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평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6·25 61주년을 맞아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했다.

(사)한국꽃꽂이협회 소속 일사귀회(회장 문상임)도 지난 24일 UN기념공원 상징구역에서 ‘유엔전용용사 추모헌화제’를 가졌다.

이 밖에도 부산종교인평화회의 ‘함동위령제’ 등이 열려 이 땅에 묻힌 영령들을 위로했다.

한편 UN기념공원은 1951년 유엔군 사령부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됐던 유엔군 전몰장병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제한유엔기념공원으로 조성한 유엔군 묘지이다. 지난 2007년 10월 24일 등록문화재 제359호로 지정됐다. 현재 UN기념공원에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2,300여 유엔군 전몰장병들이 안장돼 있는 성지이다.

도로명주소·전자도면 터치스크린으로

부산 최초 열람시스템 운영… 지적정보 검색 가능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남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남구는 사비보조금 1700만원을 교부받아 시스템을 갖추고 지난 14일 오전 이종철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갖고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방법 등을 알아봤다.

남구청 2층 토지관리과 사무실 앞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도로명주소와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의 각종 부동산과 관련 정보를 통합한 것으로 터치스크린을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열람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는 내용은 지적도와 도로명주소, 항공사진·위성사진, 지번주소, 면적·소유구분, 건물명찾기, 길찾기, 소유자명, 면적·거리·반경측정, 지형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 용도구역, 관장지도, 편의시설 찾기 등 모두 15종이다.

구청 관계자는 “부산 최초로 남구가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와 각종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며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607-4741

용호만 매립지 공람·공고

8월2일까지 의견 접수

남구는 용호만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람·공고를 오는 8월2일까지 실시한다. 남구는 이 기간동안 해당 동 게시판 등에 공고문을 게시해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제안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람 장소는 남구청 건축과이며 공람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607-4602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품격 있는 일류 행복도시 건설

민선5기 1주년 맞은

이종철 구청장



민선5기 1주년을 맞은 이종철 구청장은 “남구는 그동안 부산문화의 산실인 부산예술회관을 건립하고 협오시설인 공동묘지를 녹색공간으로 변모시킨 우암동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했으며 남구보훈회관 건립의 기반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또 “백운포체육공원 2차 조성과 함께 야간조명시설까지 설치해 남구가 생활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게 됐다”며 “이 같은 구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0만 구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남구를 ‘품격 있는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선5기 1주년을 맞은 소감을 밝혀 주신다면.

▲먼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앞으로의 1년을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예술회관과 우암동 도시 숲 조성 사업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주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5기 역점사업은 무엇이고 주요 추진사업은.

▲‘일류행복도시 남구건설’을 위해 20개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UN평화문화특구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가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57만㎡ 부지를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하면서 2015년까지 모두 1,100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550억원 규모의 일제강점기 동원 역사기념관이 지난해 1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토목공사기 진행 중이며 UN평화기념관도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돼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UN기념공원 인근 경성대에서 부산예술회관까지의 거리를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UN평화문화특구사업은 4,17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400명의 고용유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평화와 문화의 도시 브랜드 창출’로 남구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남구의 도시기반이 될 문현금융단지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현동 1227-2번지 일원에 2013년까지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 5개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6개소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 부산본점은 올해 2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4월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사옥이 준공됐습니다.

현재 국제금융센터는 공사에 들어갔으며 부산은행 본점은 착공을 앞두고 있어 금융단지 조성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32층 규모의 오피스텔도 착공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대연혁신지구 공동주거지 조성사업도 지난 5월 착공돼 2013년 6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용호만 매립지 664,966㎡ 중 40,727㎡에 초고층 명품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은 현재 주민제안으로 접수돼 입안 검

토 중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관광유람선 터미널이 착공예정입니다.

또한 부두기능을 잃은 용호부두를 해양문화와 관광·레저기능을 갖춘 친수공간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백운포 일원 4만㎡에 247억원의 국비로 요트계류장 등 해양레포츠와 해양관광 마린나 시설을 갖춘 사업에도 열과 성을 다할 각오이며 친환경적인 용호 Sea-Side관광지도 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민선5기 2년차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며 이를 통해 남구가 ‘품격있는 일류 행복도시’로 변화될 것임을 확인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선5기 2년차를 맞이하며 구정을 맡겨 주신 30만 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구를 부산을 넘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일류 행복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정의 주인 되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과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주민참여의 열린행정으로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주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척추수술, 관절수술 할까? 말까?

부산고려병원에서 결정하세요!

연기인 강부자